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K-BFQC-SF) 타당화 연구

김복환[†]

김지현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의 5요인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Big Five Questionnaire for Children(BFQ-C; Barbaranelli, Caprara, Rabasca, & Pastoreli, 2003)에 기초하여 학교장면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K-BFQC-SF)를 구성하고, 이 질문지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영문 BFQ-C 65문항을 번안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278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일부 문항의 제거 과정을 거쳐 성격 5요인의 구성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15문항의 간편형 5요인 성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축약된 15문항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의 준거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252명을 대상으로 우울, 학업 성적, 진로성숙도와 상관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5문항의 간편형 척도와 준거변인들 간의 관계는 기존에 보고된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기보고와 성인관찰자인 교사의 평정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는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의 성격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5요인 성격특성, 우울,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복환, 파주 마지초등학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칠중 1길 39
Tel : 031-959-4102, E-mail : kimbo180@hanmail.net

최근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의 적응과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양한 성격검사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격은 한 개인의 특성, 가치, 태도, 신념, 욕구, 경향성을 포함하는 한 개인의 독특한 특성으로 정의되기도 하고(Gelso & Fassinger, 1992),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적이며,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Phares, 1984). 성격이 한 개인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성격검사의 유용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요 성격검사들이 전문적인 임상적 훈련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여 생활지도나 상담, 진로지도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도구들이 가진 실용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사들이 보다 손쉽게 학생들의 성격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학생지도에서 활용성이 큰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성격연구들을 통해 성격특성은 다섯 가지의 기본적 성격 범주로 구분되고(Digman, 1989; Ostendorf & Angleitner, 1994; Macrae & Costa, 1996), 이 구조가 성별, 나이, 인종, 문화, 언어를 초월하여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Church & Katigbak, 1989; De Raad, Hendriks, & Hofstee, 1992). 많은 성격학자들이 성격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서 '5요인 모형'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여왔으며, 성격의 개인차를 설명해주는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Digman, 1989; Goldberg, 1981). 성격의 기본 구조를 찾기 위해 초기에 Allport와 Odbert(1936)가 1,800개의

성격을 나타내는 언어들 특성 범주로 분류하기 시작해서, Cattell(1946)은 35개의 성격요인으로 줄였고 이것을 다시 요인분석하여 16PF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후 일련의 연구들(Borgatta, 1964; Goldberg, 1981; Norman, 1963)을 통해 5요인이 반복적으로 추출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Guilford-Zimmerman Temperament Survey(GZTS; Guildford, Zimmernan, & Guildford, 1976), Comrey Personality Scale(CPS; Comrey, 1970)등의 성격검사들에서도 5요인 범주로 축약된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다(Krug & Johns, 1986; McCrae, 1989; McCrae & Costa, 1985; Ostendorf & Angleitner, 1992). 이들 5요인에 대한 명칭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지성 또는 개방성(Intellect or 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친화성(Agreeableness)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증(Neuroticism)은 불안, 우울, 분노, 불평 불만 등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외향성(Extraversion)은 활동성, 적극성, 자기확신과 같은 측면을 반영하는 특성이다. 지성 또는 개방성(Intellect or Openness) 지적이고 상상력 있는 특성들을 반영하고,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내고, 친화성(Agreeableness)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민감성을 반영하는 특성이다.

이러한 성격에 대한 5요인 구조는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기에도 발견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Digman과 Inouye(1986)은 43개의 형용사를 가지고 500여명의 중학생의 성격특성을 교사가 평정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5요인이 확인되었으며, John, Caspi, Robins, Moffitt와 Stouthamer-Loeber(1994)는 350명의 12~13세 아동의 어머니가 평정

한 California Child Q-sort를 분석하여 5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Kohnstamm, Halverson, Mervielde와 Havill (1998)의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어린 나이인 3세 부터 12세 아동들에게도 5요인 구조가 발견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성격을 자유기술 하도록 하고 분석한 결과 76~85% 이상이 5요인에 할당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Mervielde, Buyst와 De Fruyt(1995)는 2240명의 초등학교생들의 교사평정 자료로부터 5요인이 추출된다는 점을 검증한 바 있다. 이후에도 다양한 연령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평정한 결과 5~13세 아동에게서도 5요인 구조가 발견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Mervielde & De Fruyt, 1999). 최근에는 2세에서 15세에 이르는 아동, 청소년기에 부모, 교사 평정 5요인 성격특성의 타당도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Lamb, Chuang, Wessels, Broberg, & Hwang, 2002). 더 특별한 것은 추적연구를 한 결과 다양한 연령에서 아동에게 제공된 도구들이 연령에 따라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5요인 성격특성을 보였다는 점이다(Asendorpf & Van Aken, 2003; Lamb, Chuang, Wessels, Broberg, & Hwang, 2002).

지금까지의 아동 성격 5요인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나 교사의 평정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의 성격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성격 연구 분야에서 자기 보고가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Carver & Scheier, 1996), 성격 5요인에 대한 아동의 자기 보고가 부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격 5요인 연구들에서 아동의 성격측정을 함에 있어 부모나 교사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기 보고도 충분히 신뢰롭고 타당하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Barbaranelli,

Fida, Paciello, Giunta, & Capara, 2008; Muris, Meesters, & Diederer, 2005).

성격 5요인 검사가 아동의 적응, 발달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John, Caspi, Robins,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4; Ehrler, Evans, & McGhee, 1999; Huey & Weisz, 1997).

John 등(1994)에 따르면 5요인이 아동의 내현화, 외현화 문제들, IQ, 학교성적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낮은 친화성, 낮은 성실성, 높은 외향성은 외현화 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고, 반면에 높은 신경증은 내현화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IQ와 학교성적은 성실성, 개방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실성, 개방성(지성)이 학교성적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Mervielde, 1994; Mervielde, Buyst, & De Fruyt, 1995).

국내에서도 5요인 성격 특성이 학업 수행, 학교생활적응, 진로 관련 변인, 우울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학업성적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김동일과 안현의(2006)의 연구에서는 성실성, 개방성이 학업성적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김지현, 하문선, 김복환(2011)의 연구에서는 성실성 요인만 학업성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선희와 최영임(2011)의 연구에서도 성실성 요인만이 학업성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해서는 신경증 요인이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하문선, 김복환, 2011; 이선희, 최영임, 2011). 진로와 관련해서는 고등학

생의 경우 오현정(2008)의 연구에서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이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신경증, 개방성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길수(2004)의 연구에서는 성실성이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신경증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곽해숙(2010)의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에 대한 5요인 성격특성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개방성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5요인 성격특성은 학교 장면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의 적응의 다양한 측면들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 타당화하고자 하는 성격질문지의 경우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학교장면의 상황들(예, 나는 학교공부를 쉽게 배운다.)을 반영한 것들이어서 그 활용성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 타당화된 아동용 5요인 성격검사들을 살펴보면, 안현의와 안창규(2005)에 의해 표준화된 아동용 NEO 성격검사, 초등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김봉화(2009)가 개발하여 타당화한 5요인 성격검사가 있고, 단축형 검사로는 California Child Q-Set(John et al., 1994)을 기초로 이선희, 최영임(2011)의 간편 5요인 성격검사 등이 있다. 안현의와 안창규(2006)의 아동용 NEO 성격검사나, 김봉화(2009)가 개발한 검사들의 경우 두 검사 모두 문항수가 1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동의 제한된 주의력, 검사의 피로도, 검사에 임하는 동기 결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간편형으로 타당화된 이선희와 최영임(2011)의 성격 검사 도구의 경우 개방성 문항에서 핵심적인 구

성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Intellect)에 관한 내용이 없는 가운데, 개방성 문항이 2문항으로만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 밖에 아동의 5요인 성격 특성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대부분이 성인용 척도를 아동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단순 번안하여 사용된 것들이 많았다. 따라서 기존의 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장면에서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아동의 성격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간편형 5요인 성격 검사도구들이 문항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측정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 연구들(Gosling, Rentfrow & Swann, 2003; Rammstedt, & John, 2007)에서 밝혀진바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각 요인별로 3문항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간편형 5요인 검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을 뿐아니라 다양한 적응 지표들(예, 우울, 삶의 만족, 학교성적, 진로 등)을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따라서 다양한 언어 문화권에서 아동용으로 개발된 도구를 우리나라의 학교 실정에 맞게 타당화 하는 것은 언어·문화간 차이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면에서 학생 지도 및 상담의 실제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문화권(영미,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활용 되고 있는 Big-Five Questionnaire for Children(BFQ-C; Baranelli et. al., 2003)를 번역 및 역번역한 후 동일성 평정을 거쳐 최종 문항을 선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간편형 5요인 BFQ-C 를 구성하며, 간편형 5요인 BFQ-C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표집은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의 개발을 위해 2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에 5개 학교 278명(남 138명, 여 14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번안된 65문항의 5요인 성격질문지를 수집하여 5요인 성격검사의 요인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단축형 검사로 수정 보완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은 확인적 요인분석 및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차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252명(남 123명, 여 129명)에게 간편형 5요인 성격질문지와 함께 우울, 진로성숙도, 성적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표본 자료 중에서 123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아동의 담임교사 6명으로부터 교사 평정자료도 함께 수집하였다.

연구도구

가) 한국어판 아동용 성격 5요인 질문지 (K-BFQ-C)

아동용 5요인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baranelli, Caprara, Rabasca와 Pastorelli(2003)이 개발한 Big Five Questionnaire for Children (BFQ-C)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BFQ-C는 각 요인별로 13문항씩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BFQ-C는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측정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

다. 네덜란드(Muris, Meesters & Diederens, 2005), 이탈리아(Barbaranelli, Caprara, Rabasca & Pastorelli, 2003) 등에서 BFQ-C의 요인구조는 비교적 영어판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언어간, 문화간 적용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장휘숙(2010)이 본 검사의 타당화 과정 없이 단순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다. 교사용 문항은 아동용 문항에서 ‘나는’을 ‘이 학생은’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 우울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는 Kovacs(1983)의 아동용 우울 척도(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기술해주는 정도를 0~2점 Likert 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번호 중 2, 5, 7, 8, 10, 11, 13, 15, 16, 18, 21, 24, 25번은 역채점 하며, 총 점의 범위는 0~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 .83 이었다.

다) 성적

성적 자료는 설문 참여 학생의 1학기 중간 시험 평균점수를 담임교사가 설문지 상단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학교마다 시험문항이 다르고 점수 분포 또한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학생 성적을 평균0, 표준편차1로 하는 표준화값(Z-Score)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라) 진로성숙도

초등학생들의 진로발달의 지표로서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한 진로성숙도 검사는 정의

중, 임진영, 황매향(2011)이 초등학생용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계획성 7문항, 자기이해 6문항, 일에 대한 태도 5문항, 독립심 4문항의 총 22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방식(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정익중 외(201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계획성 .81, 자기이해 .70, 일에 대한 태도 .72, 독립심 .70, 전체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계획성 .79, 자기이해 .81, 일에 대한 태도 .71 독립심 .74, 전체 .87 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Barbaranelli, Caprara, Rabasca 와 Pastorelli(2003)이 개발한 Big Five Questionnaire for children(BFQ-C)를 바탕으로 한국어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영문 BFQ-C(65문항)를 한 명의 관련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영문학 전공 대학원생이 독립적으로 한국어로 번안한 후, 합의를 통해 가장 적절한 번안을 결정하였다. 이를 다시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자가 역번역을 하고, 다른 원어민에게 원본문항과 역번역 문항이 얼마나 동일한지 동일성 평정을 하게 하였다. 동일성 평정에서 낮은 평정을 받은 문항은 연구자가 다시 검토 및 수정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번안 문항을 완성하였다.

둘째, 최종 결정된 성격 질문지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5개 초등학교 5-6학년 담임교사에게 배부되어 교사의 안내에 따라 검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검사자료가 한국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ASW 18.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는 5로 고정하고, 요인추출방법은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L) 방식을, 요인회전은 사각회전(oblique rotation)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한국어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 구성을 위해 각 요인당 3개의 문항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이 원래 측정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성격 요인에 대해 요인부하량이 높고,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낮은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때 각각의 요인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선택하였다.

넷째, 최종 구성된 한국어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를 준거 관련 척도와 함께 표집을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간편형 질문지의 준거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적, 우울,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자기보고와 교사 평정간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도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 α 를 살펴보면 신경증이 .61, 외향성이 .67, 개방성 .74, 성실성이 .60, 친화성이 .74로 나타났다.

평정자간 일치도

아동의 자기보고 자료와 교사가 평정한 자

표 1.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의 신뢰도 (n =252)

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신뢰도 계수(α)
신경증	3	1, 6, 11	.61
외향성	3	2, 7, 12	.67
개방성	3	3, 8, 13	.74
성실성	3	4, 9, 14	.60
친화성	3	5, 10, 15	.74

표 2. 아동의 자기보고와 교사평정간의 상관 (n =123)

		아동의 자기 보고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교사 평정	신경증	.459**	.039	.011	-.239*	-.094
	외향성	-.078	.631**	.143	.237*	.203*
	개방성	.093	.233*	.595**	.265**	.269**
	친화성	-.058	.028	.108	.459**	.175
	성실성	.035	.168	.458**	.393**	.552**

** $p < .01$, * $p < .05$

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신경증($r=.46$, $p<.01$), 외향성($r=.63$, $p<.01$), 개방성($r=.60$, $p<.64$), 친화성($r=.46$, $p<.01$), 성실성($r=.55$, $p<.01$) 모두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타당도

가) 탐색적 요인분석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65문항의 아동용 5요인 성격 질문지(BFQ-C; Barbaranelli et al., 2003)의 요인구조가 한국문화에도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주요인분석을 통해 eigenvalue 및

scree plot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요인 수는 5개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 요인의 수를 5로 고정시키고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L)방법을 이용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사각회전(oblique rotation)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영문 BFQ-C가 가지고 있는 요인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상당수의 문항이 다른 요인에 적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 척도에서의 해당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적재되어 있는 문항, 요인부하량 .30이하인 문항, 하나의 문항이 두요인 혹은 세 요인에 동시에 높게 적재된(cross-loading)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각 요인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지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표 3. 아동용 5요인 성격질문지(BFQ-C: 65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n =278)

문항	요인				
	1	2	3	4	5
A_11	.693	.025	.221	-.273	.307
A_27	.668	-.090	.452	-.209	.231
C_28	.642	.073	.163	-.450	.480
A_32	.580	-.002	.339	-.323	.187
A_38	.576	-.068	.239	-.358	.371
C_22	.559	-.171	.088	-.555	.479
C_20	.472	-.050	.365	-.405	.459
A_21	.451	-.185	.201	-.254	.296
E_50	.428	.009	.297	-.281	.423
A_51	.347	.019	.222	-.243	.234
N_29	.001	.712	.018	.007	-.062
N_15	-.258	.704	.120	-.047	-.124
N_6	-.186	.602	-.273	.077	-.090
N_17	-.331	.585	.066	.065	-.134
N_31	.010	.579	-.156	.100	-.005
N_49	-.074	.499	-.075	.098	-.031
N_61	.136	.493	.063	-.094	.033
N_4	-.054	.464	.031	-.127	-.018
N_41	-.089	.453	.199	-.119	-.184
N_58	-.041	.437	.068	.135	.025
N_54	-.015	.347	.134	-.115	.196
N_8	.019	.327	.218	-.070	.074
E_19	.176	-.025	.624	-.127	.119
E_1	.197	.042	.584	-.091	.164
E_40	.044	.156	.541	-.121	.046
E_42	.301	.141	.525	-.439	.255
A_47	.363	-.159	.525	-.136	.212
E_63	.259	-.226	.512	-.222	.038
E_57	.188	.018	.495	-.274	.164
E_14	.123	-.177	.484	-.170	.048
E_55	-.013	.104	.474	-.062	-.111

E_26	.356	.093	.453	-.314	.292
A_60	.435	-.103	.435	-.153	.252
A_16	.207	.093	.427	-.149	.299
E_23	.254	.031	.412	-.344	.373
A_45	.331	-.023	.407	-.281	.319
O_43	.265	.064	.391	-.384	.226
C_44	.171	.135	.382	-.320	.248
E_35	.152	.108	.374	-.236	.260
A_64	.238	-.005	.364	-.182	.036
N_39	.132	.196	.342	-.265	.150
A_2	.195	.031	.339	-.088	.131
O_30	.400	-.007	.181	-.745	.336
O_12	.474	-.085	.117	-.712	.291
O_62	.481	-.032	.244	-.682	.276
O_46	.290	-.123	.215	-.673	.362
O_18	.359	-.004	.192	-.624	.368
O_52	.324	-.020	.228	-.505	.465
A_13	.278	.038	.232	-.475	.370
O_5	.277	.223	.193	-.470	.353
E_9	.077	.104	.296	-.467	.108
C_56	.338	-.122	.166	-.451	.310
O_33	.025	.021	.039	-.396	.212
O_59	.092	-.018	.164	-.331	.266
O_10	.296	-.006	.264	-.317	.184
C_25	.294	-.020	.086	-.391	.652
C_53	.167	-.055	.107	-.268	.647
C_48	.351	-.032	.263	-.296	.624
C_37	.300	-.195	.212	-.318	.538
C_65	.455	.069	.202	-.428	.502
C_7	.411	-.193	.204	-.409	.475
C_3	.402	-.027	.031	-.250	.459
O_24	.287	.018	-.058	-.288	.450
O_36	.140	.125	.194	-.435	.446
C_34	.374	.025	.198	-.229	.443

과정을 통해 남은 문항들을 다시 요인분석하여 각 요인별로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3개 문항씩을 선택하여 총 15문항의 간편형 한국어 BFQ-C를 구성하였다. 축약된 15문항의 요인구조는 <표 4>와 같으며, 총 변량의 64.39%를 설명하였다.

나)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근거하여 축약된 15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만들어 같은 연령의 다른 집단에서도 같은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적

표 4.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의 요인구조 (n =278)

문항내용	M	SD	요인부하량				
			O	E	N	A	C
나는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바로 이해한다	3.14	.96	.80	.10	-.02	.28	.40
나는 학교 공부를 쉽게 배운다	3.27	1.02	.77	.04	-.11	.39	.38
나는 수학을 이용한 문제들을 풀 수 있다	3.25	1.09	.66	.12	-.13	.25	.32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3.87	1.10	.13	.85	-.04	.19	.16
나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3.97	1.06	.12	.69	.03	.23	.31
나는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4.00	1.12	.12	.38	-.22	.23	.12
나는 쉽게 기분이 상한다	2.78	1.19	-.06	-.06	.84	.03	-.06
나는 쉽게 화낸다	2.79	1.15	-.09	.06	.63	-.17	-.10
나는 슬프다	1.85	1.18	-.14	-.16	.44	.02	-.06
나는 다정하고 따뜻하게 친구들을 대한다	3.33	.90	.30	.34	-.13	.75	.26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3.54	.90	.36	.10	.04	.73	.39
나는 다른 사람에게 꽤 친절하게 대한다	3.45	.86	.34	.20	-.04	.55	.26
나는 학용품 정리정돈 하는 것을 좋아한다	3.26	1.20	.33	.18	-.09	.30	.64
나는 숙제를 끝마쳐야 논다	2.77	1.29	.29	.09	-.12	.12	.60
나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킨다	3.68	.91	.25	.19	.02	.25	.50
Eigenvalue			3.72	1.84	1.72	1.24	1.13
설명분산(%)			24.80	12.31	11.46	8.28	7.54

표 5. 모형의 적합도 지수 (n =252)

적합도지수	χ^2	df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5요인 모형	137.9	80	.927	.905	.054(.038~.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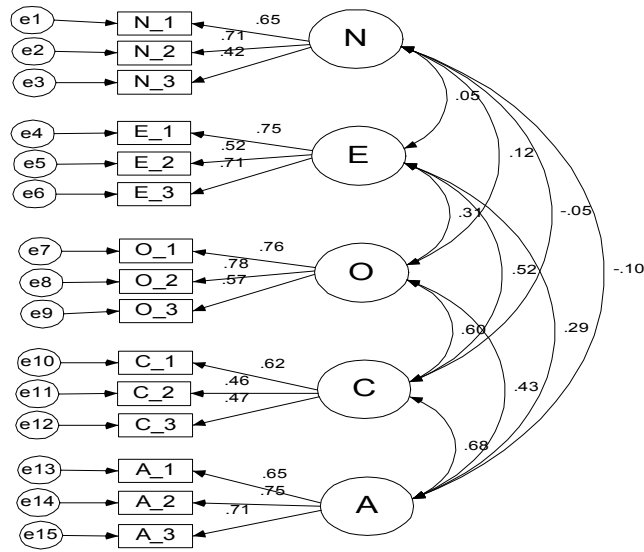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 요인구조

합도 지수로는 χ^2 ,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으며,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CFI=.927, TLI=.905, RMSEA=.054의 적합도 지수를 보여 모두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 타당도

한국어판 간편 BFQ-C 15문항 척도가 BFI-C

65문항 척도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65문항 전체와 추약된 15문항의 각 요인별 상관을 살펴보았다. <표 6>을 보면, 65문항 전체 척도에서 상당수의 문항이 탈락하면서 정보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전체 척도를 잘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경증(.87), 개방성(.83), 성실성(.81) 요인에서 추약된 3개의 문항이 전체 문항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향성

표 6. BFQ-C(65문항)와 K-BFQC-SF의 요인간 상관

(n =278)

		K-BFQC-SF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BFQ-C 전체	신경증	.869**	-.055	-.073	-.040	-.027
	외향성	-.021	.762**	.365**	.342**	.462**
	개방성	-.033	.215**	.825**	.457**	.438**
	성실성	-.135*	.230**	.606**	.808**	.520**
	친화성	-.102	.476**	.468**	.437**	.781**

**p < .01, *p < .05

표 7. K-BFQC-SF와 우울,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 (n =252)

	K-BFQC-SF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우울	.357**	-.252**	-.322**	-.250**	-.276**
학업성적	.087	.021	.426**	.045	.085
진로성숙도	-.032	.388**	.315**	.367**	.407**

**p < .01, *p < .05

(.76), 친화성(.78) 요인도 비교적 양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 요인별 3문항이 전체 척도(요인별 13문항)를 비교적 충실히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거 타당도

가) 우울, 학업성적, 진로성숙도간의 상관

5요인 성격특성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성적, 우울, 진로성숙도 준거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표 7>과 같이 신경증은 우울과 정적상관을 보이고,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요인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들에서 신경증이 우울을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신경증(r=.36, p<.01)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요인과 학업 성적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5요인 중에서 개방성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43 p<.01). 5요인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는 신경증을 제외한 나머지 4요인에서 모두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다. 진로성숙도의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계획성,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심과 5요인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진로성숙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신경증을 제외한 나머지 4요인이 모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향성(r=.39, p<.01), 성실성(r=.41, p<.01) 요인이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의 5요인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Big Five Questionnaire for Children(BFQ-C; Barbaranelli et al., 2003)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65문항으로 이루어진 영문 BFQ-C를 한국어로 번역, 역번역하여 동일성 평정 및 수정과정을 거쳐 각 문항을 번안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의 제거 과정을 거쳐 각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구성된 15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준거 타당도, 평정자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간편형 한국어 BFQ-C의 각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60~.74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로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문항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은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Muris 외(2005)의 연구에서 65문항 BFQ-C의 Cronbach's α 가 .71 ~ .83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간편형의 질문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구인타당도 검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선정된 15문항 척도의 이론적 구조를 확인하고자 5요인 모형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5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27, TLI=.905, RMSEA=.054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도 대체로 본 성격 질문지의 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인 5요인 모형의 이론적 구조가 양호하기는 하지만 일부 요인간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성실성과 친화성이 .68, 개방성과 성실성이 .60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특성상 부가적인 요인부하로 흡수되지 못한 문항간의 공변량이 요인간의 상관계수로 표현됨으로써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선희, 최영임, 2011). 또 한가지는 아동기 성격 5요인이 아직 확연하게 분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인에 비해 5요인 성격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이를 확인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성격 5요인과 관련 있는 준거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5요인과 우울과의 관계를 보면 이전의 연구들(Rustin & Larsen, 1998; 이은경, 이기학, 2005,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이선희, 최영임, 2011)에서 신경증이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신경증이 아동의 우울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요인에서는 모두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나머지 4개요인 즉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이 성격의 긍정적 특성들을 반영한 요인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업수행에 대한 5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외국의 연구들(Lounsbury, Sundstrom., Loveland & Gibson, 2002; Paunonen & Ashton, 2001)에서는 개방성과 성실성, 신경증이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지현, 하문선, 김복환(2011)의 연구에서는 성실성 요인만 학업성적과 관련이 있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이선희, 최영임(2011)의 연구에서는 친화성과 성실성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 요인이 가장 크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질문지를 개발한 Barbaranelli 등(2003)의 연구에서는 개방성 요인에서 가장 큰 상관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적은 학습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청소년과는 달리 성실성보다는 지능을 주로 반영하는 개방성과 상관이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 수행을 예측함에 있어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 뿐만 아니라, 성격 5요인 검사와 같은 비인지적 검사가 독특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Hogan, Hogan & Robert, 1996)는 한국어판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가 학교현장에서 실제적인 활용가능성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 수행을 알아보는 여러 변인 중 학교성적만을 살펴보았으나, 후

속 연구에서는 학업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과제제출, 토론, 발표, 학업소진 등)을 포함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요인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에서는 외향성(.39)과 개방성(.32), 친화성(.37), 성실성(.41)의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오현정, 2008)에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이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 신경증, 개방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는 결과와는 다소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길수, 2004)에서 성실성이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해숙(2010)의 연구에서는 개방성이 진로성숙도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에 의해 측정된 5요인 성격특성과 초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가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상관 유형을 보였다는 점은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가 학교에서의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5요인 성격 특성에 대한 아동의 자기 보고 자료와, 성인 관찰자의 평정 자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 평정과 교사 평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5요인 모두 양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가 충분한 신뢰성 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성인 관찰자, 즉 교사에 의해서도 안정된 성격 5요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초등학생의 5요인 성격특성이 우울, 학업성적, 진로성숙도와 의미 있는 상관을 보여주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적응(예, 우

울), 수행(예, 학업성적), 발달(예, 진로성숙) 정도를 예측하고 선별하는 도구로서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5요인 성격 특성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간 내면의 기본적인 경향성이라는 5요인 성격 이론의 입장(McCrae & Costa, 1996)에서 볼 때 이후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청소년기의 적응, 수행, 발달 정도를 예측하는 도구로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는 초등학생의 성격 5요인을 측정하는 간편한 도구로서 학교장면의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실제적인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성격 특성이 다양한 변인과 매우 넓은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편형 한국어 BFQC-C의 타당화를 통해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 연구를 확장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서구 문화에서 개발된 아동용 5요인 성격질문지(BFQC-C) 65문항만을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성격 특성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3개의 문항들이 학교 맥락에서의 제한된 경향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의 성격 특성을 좀 더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여 문항을 보완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성격질문지의 개방성 문항이 주로 지적호기심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검사 해석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방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Goldberg, 2001; Haverson, et al., 2003)에서도 개방성 요인이 지성(Intellect) 척도로만 구성되거나, 창의성, 상상력과 관련되는 특성이 외향성 요인에 속하는 경향이 있어 일관성 있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개방성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표집자료수가 많지 않은 점(1차 278명, 2차 252명)을 고려 했을 때, 좀 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고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재차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학교 장면에서의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작성하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다. 넷째, 한국어 간편 BFQ-C의 신뢰도 검증에서 내적 합치도만을 고려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척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해서도 본 질문지의 활용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질문지의 문항 내용이 초등학교 저학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자기 보고 자료와 교사평정간의 일치도 만을 확인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나 부모의 평정자료도 수집하여 평가자간 신뢰도 지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모형에 기초하여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의 성격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5요인 성격질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성격 5요인 모형에 대한 연구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검사도구의 개발은 아동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 학생들의 주요 적응과 수행, 발달에 대한 성격 5요인의 예측력을 고려할 때 본 검사도구가 관련 분야의 연구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지도 및 상담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곽해숙 (2010). 초등학생의 성격특성 5요인과 진로태도성숙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 안현의 (2006). NEO 청소년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4(1), 77-91.
- 김봉화 (2009). 초등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2(1), 19-37.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김지현, 하문선, 김복환 (2011). 청소년의 적응군집화 및 5요인 성격특성이 집단판별에 기여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22(3), 149-174.
- 안현의, 안창규 (2005). 아동용 NEO 성격 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오현정 (2008). 성격 5요인과 진로태도성숙도와 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이길수 (2004).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5요인 성격특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이기학 (2005). 우울과 긍정적 정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신경증과 외향성 척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2), 325-338.
- 이선희, 최영임 (2011).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일반*, 30(2), 543-569.
- 장휘숙 (2010).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17.
- 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24(3), 169-194.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Allport, G. W., & Odbert, H. S. (1936). Trait-names: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 No. 211.
- Asendorpf, J. B., & Van Aken, M. A. G. (2003). Validity of Big Five Personality judgments in childhood: A 9-year longitudinal stud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1-17.
- Barbaranelli, C., Caprara, G. V., Rabasca, A., & Pastorelli C. (2003). A questionnaire for measuring the big five in late child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645-664.
- Barbaranelli, C., Fida, R., Paciello, M., Di Giunta, L., & Caprara, G. V. (2008) Assessing personality in early adolescence through self-report and other-ratings a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of the BFQ-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876-886.
- Borgatta, E. F. (1964).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ehavioral Science*, 9, 8-17.
- Carver, C. S., & Scheier, M. F. (1996). *Perspectives on personality*. Boston: Allyn & Bacon.
- Cattell, R. B. (1946). *The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personality*. Yonkers, NY: World Book.
- Church, T. A., & Katigbak, M. s. (1989). Internal, external, and self-report structure of personality in a non-western culture: An investigation of cross-language and cross-culture generaliz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857-872.
- Comrey, A. L. (1970). *Comrey Personality Scale manual*. San Diego, CA: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 Costa, P. T.,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e Fruyt, F., Mervielde, I., Hoekstra, H. A., & Rolland, J. P. (2000). Assessing adolescents' personality with the NEO PR-R. *Assessment*, 7, 329-345.
- De Raad, B., Hendriks, A. A. J., & Hofstee, W. K. B. (1992). Towards a refined structure of personality trai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6, 301-319.
- Digman, J. M. (1989). Five robust trait dimensions: Development, stability, and u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57, 195-214.
- Digman, J. M., & Inouye, J. (1986). Further

- specification of the five robust factor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16-123.
- Ehrler, D. J., Evans, J. G., & McGhee, R. L. (1999). Extending the Big Five theory into childhood: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36, 451-458.
- Gelso, C. J., & Fassinger, R. E. (1992). Personality, development, and counseling psychology: Depth, ambivalence, and actu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75-298.
- Goldb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 pp.141-165). Beverly Hills, CA: Sage.
- Goldberg, L. R. (2001). Analyses of Digman's child-personality data: Derivation of Big-Five Factors from each of six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69, 709-742.
- Gosling, S. D., Rentfrow, P. J., & Swann, W. B.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504-528.
- Guilford, J. S., Zimmerman, W. S., & Guilford, J. P. (1976). *The Guilford-Zimmerman temperament Survey Handbook: Twenty-Five years of research and application*. San Diego, CA: EdITS Publishers.
- Haverson, C. F., Havil, V. L., Deal, J., Baker, S. R. Victor, J. B., Pavlopoulos, V., Bersergeris, E., & Wen, L. (2003). Personality structure as derived from parental ratings of free descriptions of children: The inventory for chil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 995-1026.
- Hogan, R., Hogan, J., & Roberts, B. W. (1996). Personality measurement and employment decisions. *American Psychologist*, 51, 469-477.
- Huey, O. P., & Weisz, J. R. (1997). Ego control ego resilience,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404-415.
- John, O. P., Caspi, A., Robins, R. W.,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4). The "Little Five": Exploring the nomological network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5, 106-178.
- Kohnstamm, G. A., Halverson, C. F., Mervielde, I., & Havill, V. L. (1998). *Parental descriptions of child personality: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the Big Five?* Hillsdale, NJ: Erlbaum.
- Kovacs, M. (1983).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Self-rated Depression Scale for School-aged Youngste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ittsburgh, 1983.
- Krug, S. E., & Johns, E. F. (1986). A large sample validation of second-order personality structure defined by the 16PF. *Psychological Reports*, 59, 683-693.
- Lamb, M. E., Chuang, S. S., Wessels, H., Broberg, A. G., & Hwang, C. P. (2002). Emergence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ig Five Factors in early childhood: a Longitudinal

- analysis of their ontogeny in Sweden. *Child Development*, 73, 1517-1524.
- Lounsbury, J. W., Sundstrom, E., Loveland, J. M., & Gibson, L. W. (2002). Intelligenc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work drive as predictors of course gr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009-1019.
- McCrae, R. R. (1989). Why I advocate the five Factor model: joint analysis of the NEO-PI and other instruments. In D. M. Buss, & N. Cantor (Eds.), *Personality psychology: recent trends and emerging directions* (pp.237-245). New York: Springer Verlag.
- McCrae, R. R., & Costa, P. T. (1985). Comparison of EPI and Psychoticism scales with measures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87-597.
- McCrae, R. R., & Costa, P. T. (1996). Toward a new generation of personality theories: Theoretical contexts for the five-factor model. In J. S. Wiggins(E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oretical perspectives* (pp.51-87). New York: Guilford Press.
- Mervielde, I. (1994). A five-factor model classification of teachers' constructs on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children aged 4 to 12. In C. F. Haverson, G. A. Kohnstamm, & R. P. Martin(Eds.), *The developing structure of temperament and personality* (pp.387-39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rvielde, I., Buyst, V., & De Fruyt, F. (1995). The validity of the Big Five as a model for teacher's ratings of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children aged 4-12 yea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525-534.
- Mervielde, I., & De Fruyt, F. (1999). Construction of the Hierarchical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HiPIC). In I. Mervielde, I. Deary, f Ed Fruyt, & F. Ostendorf(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Proceedings of the Eight European conference on personality psychology* (pp.107-127). Tilburg, The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Press.
- Muris, P., Meesters, Cor., & Diederens, R. (2005).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ig Five questionnaire for Children (BFQ-C) in a Dutch sample of young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757-1769.
- Norman, W. 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Ostendorf, F., & Angleitner, A. (1992). On the generality and comprehensivenes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evidence of Five Robust Factors in Questionnaire data. In G. V. Caprara, & G. Van Heck(Eds.), *Modern personality psychology* (pp.73-109).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Ostendorf, F., & Angleitner, A. (1994). The Five-Factor taxonomy: Robust dimensions of personality description. *Psychological Belgica*, 34, 175-194.
- Paunonen, S. V., & Ashton, M. C. (2001). Big Five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 78-90.
- Rammstedt, B., & John, O. P. (2007). Measuring personality in one minute or less: A 10-item

- short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in English and Germa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203-212.
- Phares, E. J. (1984).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 Rustin, C. L, & Larsen, R. (1998). Moods as sources of stimulation: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desired mood st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321-329.

- ◆ 원 고 접 수 일: 2012년 7월 30일
- ◆ 수정원고접수일: 2012년 9월 04일
- ◆ 게 재 승 인 일: 2012년 9월 06일

Validation of Korean short version of the Big Five Questionnaire for children

Bok-Hwan Kim

Ji-Hyeon Kim

Hogi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short version of the Big-Five Questionnaire for children, a instrument designed to measur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hort Big-Five Questionnaire for children was composed of 15 items based on exploratory factor analyses on th data from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N=278).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evidence of structural validity of the Korean short version BFQ-C. The correlations of K-BFQC-SF with the criteria of depression, academic achievement, career maturity were assessed to verify criterion-related validity.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orrespondent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sufficient to assess five factor personality domains in school settings.

Key words : Five factor model, Big-Five Questionnaire for Children, Depression, Academic achievement, Career maturity